

선유미술품의 표현기법이
또개기법으로 이용한
장식구 조형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김소주얼티디자인전공

62014524 김소연

차례

하나. 들어가는 말

1. 연결지
2. 연구 내용과 방법

둘. 알아보는 말

1. 뜨개질 연구

- 1) 직조 Weaving
- 2) 편물뜨기 Knitting
- 3) 훑뜨기 Crochet
- 4) 짜기 Braiding
- 5) 보빈레이스 Bobbin lace
- 6) 바구니짜기 Basketry

2. 뜨개질을 응용한 장신구 작가연구

- 1) 알린 피쉬 Arline M. Fish
- 2) 윤주연
- 3) 송미영

셋. 분석하는 말

넷. 나가는 말

하나, 두이가는 말

1. 연구지

현대장식구의 두드러진 특징 재현 기법의 다양성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독창적인 장식을 만들기 위해 적합한 기법의 소재와 표현 기법을 찾아 중 심유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런 표현과 유연함에 매력을 느껴 심유 표현 기법의 전개법과 기법재현 사상을 접목하여 연구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기소장식을 제작함에 있어서 심유의 전개 기법을 인용함으로써 기소이라는 재료가 가진 딱딱하고 무거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손으로 만든 심세함과 심유의 유연함을 지닌 장식을 개발함에 있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이 연구는 연구자가 전개법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였는데 그 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개법의 종류와 방법을 조사하였고, 그 방법을 실험해보며, 장식구 기법으로의 활용을 연구하였다.

둘째, 전개법을 인용한 장식구 작가들의 작품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기소공예 표현방법을 연구하였다.

셋째, 장식을 제작함에 있어 독창성과 조형성을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작품 제작에서는 자연의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표현하였고 가느다란 기소 사상을 사용해 다양한 전개법을 인용하여 뜬으로써, 얇고 가벼워진 다양한 질감을 표현을 주안 하였다.

토. 알아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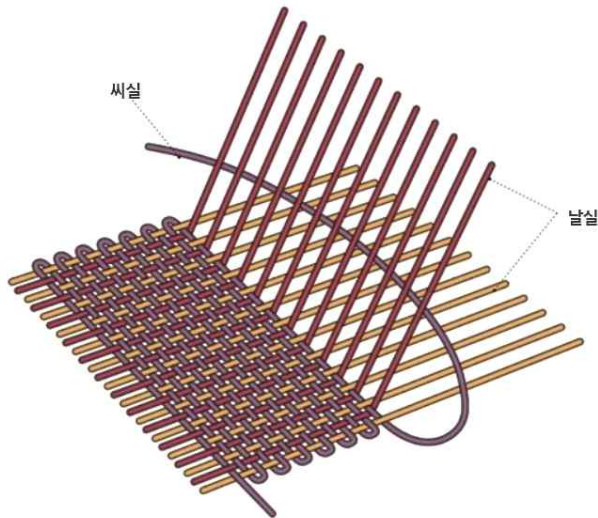
1. 뜨개질 연구

그릇을 재료로 할 수 있는 뜨개질에는 직조 Weaving, 편물뜨기 Knitting, 바느뜨기 Crochet, 짜기 Braiding, 보빈레이스 Bobbin lace, 바구니짜기 Basketry 등이 있으며, 작가의 의도에 따라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기법이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

뜨개질의 개념과 트칭, 제작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직조 Weaving

직조는 어떠한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두 가지의 다른 요소를 엮어 짜는 것을 의미하며 경사와 위사가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면서 만들어지고, 그 교차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직물 조직을 형성한다.



[그림 1] 직조의 예

2) 편물뜨기 Knit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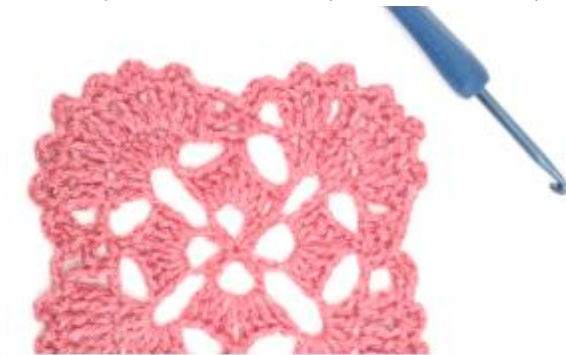
편물뜨기는 뜨개바늘의 규칙적인 움직임으로 생기는 고리들이 상호 연결되어 만들어진 직물조직법을 말한다. 신과 바늘의 굵기에 따라 고리의 크기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조직의 구조도 다르게 형성된다. 또한 편물뜨기의 조직은 탄성이 있어 늘리고 줄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창적인 질감 표현이 가능하다. 방법으로는 바느뜨기와 실패뜨기가 있다.



[그림 2] 편물뜨기의 예

3) 퀘바늘뜨기 Crochet

갈고리 모양의 바늘로 그물모양이나 레이스 조식을 짜나가는 것을 말하며, Crochet는 '작은 갈고리' 또는 '갈고리로 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퀘바늘뜨기의 특징은 구성조식을 여러 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원하는 지점에 다른 조식을 첨가시킬 수 있고, 형태변화는 고리의 늘림과 줄임에 의하여 만들어 낼 수 있다. 기본 뜨기 방법에는 사슬뜨기, 한번 갈아 뜨는 짧은뜨기, 두 번 갈아 뜨는 긴뜨기가 있으며 갈는 횟수가 많고 바늘과 신의 굵기가 굵을수록 심근 느낌을 준다.



[그림 3] 퀘바늘뜨기의 예

4) 따기 Braiding

따기는 주로 세 가닥이 한 조를 이루어 신어 짜는 것을 의미하지만 3개 이상의 가닥도 가능하다. 또 따거나 구조물 같은 개폐식으로 짜려면 홀수이거나 최소 기본수의 짝임이 있어야 한다.



[그림 4] 따기의 예

5) 보빈레이스 Bobbin lace

보빈레이스는 보빈이라는 손잡이 모양의 연장에 필연한 선을 감아, 따듯이 패턴을 만들어 가는 작업이다. 보빈레이스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요소들이 모여서 보합적이고 세련된 패턴을 만들어가는 정교한 과정이다.



[그림 5] 보빈레이스의 예

6) 바구니짜기 Basketry

바구니짜기는 갈대, 나뭇가지, 금속재료들과 같이 가늘고 긴 재료를 이용하여 짜거나 엮어주거나 바느질하여 바구니나 요 등을 만드는 방법을 총칭하여 바구니짜기라고 말한다.

구조는 구성요소, 제작방법,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추어 엮기, 꼬기, 감기, 결물짜기, 꼬리만들기, 매듭진기 등의 방법으로 제작된다. 금속 선재로는 꼬기 작업이 가장 용이하고, 금속판재는 엮기 방법이 용이하다.



[그림 6] 바구니짜기의 예

2. 뜨개질을 응용한 장신구 작가연구

뜨개질을 응용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들 가운데 알린 피쉬, 윤주연, 송미영을 선정하여 그들의 작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 알린 피쉬 Arline M. Fisch



[그림 1] pink & gold, 팔찌 / 동선

2) 윤주연



[그림 2] Flapper 3, 목걸이 / 손은, 에너메신 / 2007

3) 송만



[경 4] 새로운 만남, 브러시 / 정은, 홍마노

색, 분식하는 맛

작품은 눈이 내려 곱곶이 쌓이는 겨울의 이미지를 추상으로 표현해본다. 블랙 [를 사용한 표면
차색은 눈이 내려 곱곶이 쌓이는 기이와 시각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였다.

기법으로는 편모뜨기 기법을 응용하였다. 편모뜨기는 씨실 또는 낱실에 의해서 형성된 고리가 연결 되어
다양한 짜임 형태가 나타난다. 이런 뜨개의 짜임에서 보이는 패턴의 반복은 시각적 흥미를 불러일으키
뿐만 아니라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준다. 가는 금소사실을 뜨개질하여 제작한 장신권, 실제
실유를 사용한 장신권보다 견고하고 실유와 같이 유연하고 자연스러워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착용함에 있어 하나의 장신권 원하는 대로 다양한 형태를 연출할 수 있다

작업의 주재료인 금소사실은 뜨개에 적합한 재질로 윤지임이 자유로운 실유의 유연한 느낌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며 금소의 견고함을 갖추어 있어 실용적이다. 작품 제작에 있어 고리의 외경이
1.1x0.98mm, 두께가 0.25mm인 정은 사실을 사용함으로써 실유가 가지고 있는 부드러움을
표현하기에 용이하고 편안한 착용감에 도움을 준다.



[경 10] 문동다, 모글이 / 정은 / 2015

넌, 나가는 말

일반적인 금속장식구가 갖는 무겁고 딱딱한 느낌을 변화하고자 섬유 표현 기법의 프개기법을 응용하여
이상처럼 편안하고 착용감과 유연함을 가진 장식구를 제작해보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프개기법을 통한 장식구 표현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앞으로 이 연구를 계속
진행하여 심세하고 가벼운 착용예술로서의 장식구 개발에 노력할 것이다.